

† 찬미예수님

이번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 최악마저 스스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다른 이들의 결점, 조그만 티끌만을 보다가 마지막에야 자신의 커다란 들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결점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시기를 지냅시다.

## 2017년 3월 19일 복음 말씀 사순 제 3주일

<솟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5-42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올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올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 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더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녁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샅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올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주임 신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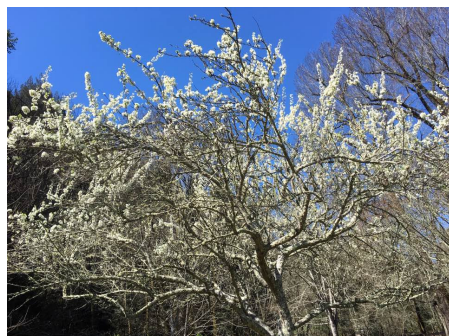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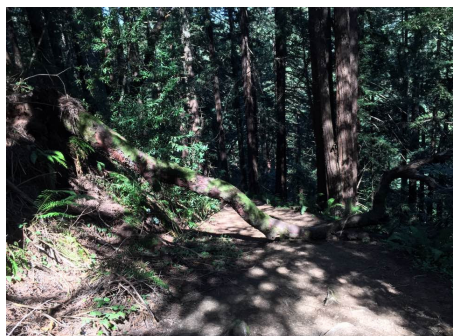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 2주일을 맞이했네요. 날씨가 화창하고 더워졌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에 하이킹클럽 회원들과 가볍게 산행을 합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레드우드 숲속을 걷고 뛰며 신선한 자연의 싱그러움과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고 왔습니다. 늘 바쁜 사목생활을 해야 하는 저에게 이 시간은 재충전과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조용히 만나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온갖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 육체적으로 특히 정신적으로 지치기 쉬운 제게 큰 위안과 재충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레드우드 숲을 거니는 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묵상과 관상) 새롭게 거듭 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걸으면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청년들을 기억했습니다. 직장생활로 매일 바쁘게 지낼 우리 청년들이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약간의 여유를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1여년을 지내보니 베이지역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때론 삶의 여유를 찾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출퇴근으로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곧 하느님께서 베이지역 사람들에게 준 자연의 선물을 무심코 지나가거나 누리지 못하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낯선 땅에서 힘들어도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 사순시기 동안 이 문제를 거듭 생각해 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선물과 다른 다양한 선물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자 그것을 누리보는 여유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시기는 바로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아나서는 여정입니다.

오늘 제가 누렸던 하느님의 선물을 여러분과 사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뿌리가 얇은 나무는 풍파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있더군요.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가 얇으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까요? ^^)

숲으로 가려진 저 파란 하늘, 삶의 그늘이 있지만 분명 저 파란 하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꽃을 피우고 대자연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그분의 사랑으로 이른 부활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

## 2017년도 3월 셋째주 공지입니다.

### 주보 나눔 봉사 - 3/19 시작

교중 미사 전 성당 입구에서 현재 어르신들이 하고계신 주보 나눔 봉사를 다음 주일, 3/19일부터 하모니, 뜨락회에서 함께 합니다. 주보를 전달하며 새신자 분들, 특히 새로 오는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청년회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 계획하게 되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성물 수거

집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파손된 성물 (목주, 십자가상, 성모상, 성화, 등)을 성당 입구에서 수거합니다. 성물은 축복을 받은 거룩한 물건이므로 함부로 버리면 안되고 처분시엔 땅에 묻거나 성당에 가져와 성물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수거된 성물은 오클랜드 교구에 보내져 관례대로 처분될 것입니다.

### 성모회장님 스파게티 점심식사 - 3/19

다가오는 주일 (3/19)에 허은희 마리아 성모회장님께서 하모니와 뜨락회를 위해 손수 맛있는 스파게티를 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청년들의 설거지 봉사에 고마움을 전하며 준비하시는 스파게티를 모두 함께 맛있게 먹고 인사드려요~

###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 연미사 - 3월 매 주일

3월 매 주일 아침미사에 구 뜨락회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를 위한 연미사를 봉헌합니다. 19일 주일은 형제님의 세번째 기일이니 만큼 시간되는 님들 아침 미사에 함께 참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추억하며 형제님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 이름표 부착

성당에 있는 동안은 반드시 이름표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서로가 이름과 본명을 기억하여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하모니 멤버들이 늘고 있으니 서로 이름을 반복되게 묻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름표를 꼭 부착해 주세요. 이름표를 분실했거나 여분이 필요한 분들, 알려주시면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사순시기 다짐 실천

사순시기 동안의 다짐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사순시기 동안 회생과 절제로 무엇을 끊는다는 다짐도 좋지만, 무언가를 '하자'는 다짐으로 그동안 소홀했던 영신수련과 애덕을 실천하면 좋다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죠. 실천의 일부로 이웃에게 매일 한마디씩 따뜻한 말 전하기, 십자가의 길 기도 드리기, 또는 영적 도서 읽기 등으로 우리의 심신을 풍요롭게 성장 시키는 방법은 어떨까요. 아침 성물방에서 사순시기동안 성물/도서를 20%할인판매 하고 있어 영적 도서를 접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물같은 자원이 많은 성물방, 이번 기회에 방문해 보세요~

## 사순절 전례 (3/1-4/15)

- 교황님의 "사순시기 양심성찰" <http://www.oakcc.org/node/2849>

### -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 그리고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적어도 한번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며 예수님 마지막 시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성당에서의 십자가의 길이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성화와 기도문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바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 '성화로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을 참고하세요. [바오로팔콘텐츠] 성화로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 [https://www.youtube.com/watch?v=q2eM\\_-jixP4](https://www.youtube.com/watch?v=q2eM_-jixP4)

### - 부활판공성사

매 미사 30분전부터 고해성사가 있으며, 판공성사표를 작성하여 고해실 안 바구니에 넣으면 됩니다.

### - '신앙의 신비어' 응답송

사순시기 동안 '신앙의 신비어' 응답송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다"로 합니다.

### - 특강

4/2 주일 교중미사 중 (김종광 요한 트라이벨리 신부님)

4/9 주일 점심/대청소 후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주임 신부님)

### - 성경 쓰기

사순시기동안 신약성경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과 야고보 서간을 쓰고 필사한 노트는 부활 성야 미사(4/15)때 봉헌합니다. 사순시기동안 참회와 기도, 나눔과 자선, 그리고 성경쓰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은총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 3/23 목

매달 네번째 목요일 오후 4시에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빈첸시오 어른들과 함께 작게나마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후 4시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6시/6시반경에 배식을 시작합니다. 4시, 또는 퇴근 후 6시경에 시간되는 분들, 함께 만나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일시: 3/23 목 오후 4시 (시작)

장소: 722 Washington St. Oakland (\* <https://www.cityteam.org/oakland/>)

(\*Cityteam은 1957년부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과 숙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해 온 비영리 크리스찬 단체입니다. <https://www.cityteam.org>)

## 영어미사 - 3/26 주일

3/26 주일을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성당에서 영어미사가 있습니다. 주 목적은 쉬고있는 영어권 신자들이 편안하게 소통하며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대부분이 하모니, 트락회 연령대라 예측됩니다. 또래 영어권 친구들이 따뜻하게 환영 받으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회 멤버들이 주축이되어 챙겨주라는 신부님의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처음 시작하는 영어미사가 잘 활성화되어 쉬는 교우들과 주님안에서 소중한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미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3월은 특별히 우리 청년회 멤버였던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mailto: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http://www.oakcc.org)